세상문화, 어디까지 즐겨야 합니까? ❧

Q) 학교 친구들은 영상문화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TV 오락 프로그램과 비디오, 컴퓨터 게임뿐 아니라 연예인과 최신가요 그리고 인기스타들의 생활에 대해 모르면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영상문화를 알고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생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 과천에서 주윤 올림

A) 건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기르세요.
"저건 좀 야하지만 나도 보고 싶은데…" "이런 걸 봐도 될까?" "나만 모르면 외톨이가 되는데…"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영상문화와 관련된 최신가요와 유행하는 록 음악 및 연예인들에 의한 영향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아무도 세상의 움직임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숨기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기 쉽고, 또 대화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서운 폭력, 음란한 성적 행위, 극도의 물질주의, 어두운 사회 측면, 건강과 인생을 망치게 하는 마약과 관련된 일, 기타 사회적인 갈등 등을 보게 되며, 그것은 곧 이상적인 가치관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모든 영상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건전한 내용을 담은 영화나 비디오도 있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들은 내용이 건전하거나 교육적이면 '재미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가 보았던 '나의 왼발'이나 '미션'과 같은 영화나, 어떤 비디오 작품은 흥미 있고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세계를 보고 배우며, 새로운 문화에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많이 있어요. 영화는 내게 현실과 다른 것이나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수퍼맨'이 하늘을 나는 것이 영화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즐기던 꼬마가 높은 지붕에서 보자기를 목에 걸고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은 것이 한 실례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처럼 만드는 것이 영화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쥬라기 공원'에서, 이미 화석이 된 곤충을 통하여 공룡을 재생시키면서 그것이 대단히 과학적이며 가능한 것처럼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룡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건전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어렵고, 부모나 좋은 선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록 호기심은 생기지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될 만한 영화나 비디오 작품은 처음부터 안 보는 것이 좋아요.

마약을 한번 쯤 해본 다음에 피해를 경험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잘못인 것처럼, 이런 영화나 비디오도 그렇죠. 건전 비디오를 추천받아 즐길 수도 있어요. 무조건 비디오는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주의시키는 것이죠. 보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생에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시기가 청소년의 때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여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많은 책을 읽는 것도 현명한 태도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 오히려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라면,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아예 흉내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또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훈련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멋진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유행하는 것들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기르세요.

글/이상은(극동방송 상담실장)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